

보도설명자료 (16.7.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서울 한복판, 전기차 충전하러 1시간 해맸다”

(16.7.19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① 서울 한복판, 전기차 충전소 고장·오류로 1시간 출발 지연
- ② 전기차 대수당 충전소는 한국이 17대당 1기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
- ③ 정부의 급속충전기 서울·제주 2km내 구축은 예산·부지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1~2년내에는 어려울 것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《①에 대하여》 : 환경부

- 보도된 7.13일 해당 충전소의 충전기록을 확인한 바, 충전에 실패한 서울시 급속충전기 3곳(세종로 공영주차장, 종묘 공영주차장, 마장동 주민센터) 중 2곳은 정상 가동중이었음
 - 세종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충전케이블 사용 미숙으로 충전에 실패한 것으로 보임
- * 같은 날(7.13) 다른 전기차는 충전에 성공하였음(정○○ 등 충전기록 있음)
- 종묘 공영주차장은 취재차량인 BMW나 GM 차량 이외에 다른 전기차는 충전이 가능한 듀얼형 충전기*임

* 사용 가능 전기차 : 현대·기아, 닛산, 르노삼성

- 마장동 주민센터는 공중전화부스에 급속충전기를 설치 중에 있었으며, 지난 7월 15일부터 사용을 개시함(16.7.12, 환경부 브리핑자료 참고)

《②에 대하여》 : 환경부

- 우리나라가 전기차 17대당 충전기 1기라는 보도 내용은 환경부가 설치한 급속충전기(337기) 대수만 표시한 것임
 - 외국과 같이 민간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기(911기)를 포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전기차 4.6대당 충전기 1기임
- * 전기차 대수당 충전기 : 중국 3.8대당 1기, 미국 6.6대당 1기, 일본 3.2대당 1기

《③에 대하여》 : 산업부, 환경부

- 금년중 급속충전기 대폭 확충을 위해 한전 개방형 충전소(300기) 투자 자금은 既 확보하였고, 환경부도 '16년 예산에 既 반영
 - 부지도 지자체·민간 협조 등을 통해 확보중에 있으며, 금년 약 500기*의 급속충전기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임
- * 환경부 150기, 한전 300기, 민간충전사업자 40기 등
- * '15년말까지 누적 구축된 급속충전기는 531기(환경부 337, 민간 194)

※ 문의 : 환경부 교통환경과 홍동곤 과장(044-201-6920)
이주현 사무관(044-201-6941)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이귀현 과장(044-203-5390)
김인곤 사무관(044-203-5394)